

**리차드 마이어(Richard Meier)의 미술관건축 공간구성 특성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pace Organization of Richard Meier's Museum Project

이성훈* / Lee, Sung-Hoon

Abstract

This study is focused on three major museum projects completed during 1990's by Richard Meier who is known as the romantic modernist as well as one of the architects who continue their devotion on completing the fourth dimensional spatial concept through the practice. Main focus of the study will be analyzing the space and design elements shown in 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 (Barcelona, Spain, 1986-95), Museum of Television & Radio (Beverly Hills, CA., 1994-96) and the Getty Center(Los Angeles, CA., 1984-97), and find out the new meaning of museum design suggested by the architect. The analyzation was done based on the actual sight visits and through the acquired references.

The museum designs done by Richard Meier show consistency between visual language, use of 'light, space and form' as the design elements to connect interior and exterior to create openness and harmony with surrounding condition. Additionally, greatness of the architectural elevation, efficient use of interconnecting space, adoption of natural light, affective use of the space, careful consideration to the exhibiting items, spread of information centers, balance between large and small exhibition spaces, and his concept on providing choices to the viewer within the museum are the main issues in designing the museum in order to give various spatial experience to the visitors.

키워드 : 리차드 마이어, 미술관건축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훌륭한 건축공간이란 사람들의 능동적 참여를 일으키고 감각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공간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열에 대한 감각, 운동감각 등 인간이 가진 감각이외에 또 다른 차원에 의해 인지되고 이해되어진다. 이것은 순간적이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되고, 건축물과 인간과의 상호작용에 따른 공간적 경험에 의해 만들어진다.

포괄적인 인간의 경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간의 차원이 공간을 구성하는 3차원과 결합할 때 완전한 시공간(時空間)의 개념이 완성되는 것이며, 이런 종합된 경험적 요소들이 바로 실내건축에서 가장 심오한 구성요소인 4차원인 것이다.¹⁾ 그리

고 이렇듯 완성된 4차원 공간들은 다양해져 가는 사람들의 건축에 의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간적 체험을 가능케 해 주며, 나아가서는 인간 삶의 질(質)을 향상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미술관은 다른 장르의 건축물에 비해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공간일 뿐 아니라 다양한 공간체험의 제공 및 문화적 욕구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건축물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빛, 공간, 형태'의 요소를 이용하여 4차원의 공간구성을 완성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낭만적 모더니스트 리차드 마이어의 건축작품들 중 1990년대에 완공된 세 곳²⁾의 미술관건축물을 대상으로 공간 및 디자인 요소에 대한 내용을 크게 배치계획을 포함하는 진입부구성, 평면구성, 기본구조, 전시공간구성, 채광형식, 동선체계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1) John Kurtich · Garret Eakin, Interior Architecture, Van Nostrand Reinhold, New York, 1993, p.174

2) Museum of Contemporary Art(Barcelona, Spain, 1987-95), Museum of Television & Radio(Beverly Hills, CA., 1994-96), Getty Center(Los Angeles, CA., 1984-97)

* 정회원, 경원대학교 건축실내건축학부 조교수

** 본 논문은 2000년도 경원대학교 교내연구지원비에 의한 연구결과임

써 그가 최근에 설계한 미술관건축물의 구성요소 및 특성을 고찰하고, 그가 현대의 미술관건축에 제시하는 의의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1.2. 리차드 마이어의 건축활동 및 특성

리차드 마이어는 1934년 미국 뉴저지(New Jersey)에서 태어나 코넬대학에서 건축교육을 받았으며(57년 졸업), 르 꼬르뷔제(Le Corbusier)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 미스 반 데 로에(Mies van der Rohe)와 같은 세계적인 현대건축거장들과 제2세대 건축가³⁾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그의 작품에는 꼬르뷔제의 필로티(pilotis), 램프(ramp), 천창(sky light), 옥상정원 등의 건축적 요소들과 라이트의 유기적 건축개념, 그리고 미스의 공간개념 즉, 벽은 다만 공간을 둘러싸는 수단으로 구조상의 역할에서 해방시킨 기법 등과 같은 건축적 영향을 찾아볼 수 있고, 2세대 건축가들로부터의 공간과 형태(조형성)와 빛에 대한 영향을 역력히 찾아볼 수 있다.

초기경력으로는 1959년에 Davis, Brody & Wisniewski 사무소에서 1년간 근무한 후, 1960년에는 SOM의 뉴욕사무실에서 근무하였으며, 1961년부터 63년까지는 바우하우스의 교육을 받았고, 라이트의 영향을 받은 브로이어에게 사사를 받았으며, 그 후 1963년에는 뉴욕 근대미술관에서 열린 꼬르뷔제의 전시회에서 큰 자극을 받아 뉴욕 시에 자신의 사무실을 오픈하여 백색건축(white architecture)⁴⁾에 심취하면서 많은 개인주택뿐만 아니라 상업건축, 공장, 병원, 교육시설, 사무실, 미술관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완성하였다. 또한 그는 그레이브스(Michael Graves), 파쓰메이(Charles Gwathmey), 아이젠만(Peter Eisenman), 헤이덕(John Hejduk)과 함께 '뉴욕-5(New York-5)⁵⁾'라는 그룹을 결성하여 초기 근대주의자들의 순수한 백색재료(회반죽)에 의한 기하학에 관심을 갖기도 하였으며, 1984년에는 건축부문에 있어 노벨상이라고 일컬어지는 프리츠커(Pritzker)상을 수상하였다.

그의 시대별 주요작품으로는 60년대의 Smith 저택, Douglas 저택을 비롯한 많은 백색건축의 저택들이고, 이를 계기로 국내

에 명성을 얻기 시작하였으며, 70년대에는 Bronx Development Center를 비롯한 수많은 공공건축을, 그리고 80년대에는 프랑크푸르트의 Museum of the Decorative Arts를 비롯하여 외국에서의 많은 작품들과 High Museum of Art과 같은 대표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백색건축의 절정을 보여주며 국제적인 건축가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90년대에는 본 논문의 3곳의 미술관을 비롯하여 파리의 까날¹⁾ 본사(1992), 스웨덴의 바이스하우프트 포럼(1993), 올림의 슈타트하우스(1993), 헤이그의 시청 및 도서관(1995), 룩아일랜드의 스위스어어 노스 아메리칸 본사(1995) 등 국제적인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그는 건축활동뿐만 아니라 건축교육을 위해 쿠퍼 유니언(Cooper Union), 코넬(Cornell), 하버드(Harvard), 프랫(Pratt), 프린스턴(Princeton), 시라큐스(Syracuse), 예일(Yale) 등 많은 대학에서 객원교수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2. 미술관건축 사례분석

2.1. 분석대상 사례개관

마이어가 설계한 세 곳의 미술관은 모두 1990년대에 완공된 건물로서 그의 최근의 설계경향을 파악하기 용이할 뿐만 아니라 규모 면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공간구성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건물이기 때문에 본 논문의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고, 분석대상 사례는 실사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분석대상 미술관건축물의 개관은 <표 1>과 같다.

<표 1> 분석대상 사례개관

미술관 명칭	성격	작품의도	주변성
Museum of Contemporary Art, Barcelona/ 1987-95	· 카탈로니아 지방의 현대예술품을 중심으로 세계의 현대미술소장 · 3개 단층의 컨소시엄에 의해 작품 수집·전시·운영	· 기존의 urban context를 반영한 배치계획 · 빛에 의한 공간과 조형미 추구 · 주변의 역사적 건물들과의 조화	· 수도원으로 사용되었던 대지 · 주변에 역사적 건물 산재
Museum of Television & Radio, Beverly Hills, CA/ 1994-96	· 비영리단체 · 텔레비전/라디오 프로그램의 수집/보관/방송/채취하기 위한 박물관	· 한정된 예산에 따른 기존 구조의 재활용 · 랜드마크적 성격을 띠며, 방문객을 환영하는 이미지	· 중규모로 형성된 상업지역내 위치 · 베벌리 힐즈의 두 도로를 면한 대지
Getty Center, Los Angeles, CA/ 1984-97	· 정보센터, 미술품 보존과학연구, 미술사 · 인문학 연구, 미술 교육 프로그램 연구, 연구지원 등 6가지 성격으로 구성된 복합에설단지 · 미술관은 J. Paul Getty의 소장품 전시	·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 여유로운 예술품을 즐길 수 있는 분위기 · 축 개념에 의한 다기능의 건물배치 · 빛과 형태의 강조	· 로스앤젤레스 도심지의 서측 근교 브렌우드구릉 위에 위치 · 산타 모니카, 로스앤젤레스 해변, 태평양으로의 뛰어난 조망 및 조경

3)알바 알토(Alvar Aalto), 루이 칸(Louis Kahn), 마르셀 브로이어(Marcel Breuer), 필립 존슨(Philip Johnson), 에로 사리넨(Eero Saarinen) 등

4)마이어에 있어 백색은 모든 자연색에서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색채이며, 백색 표면을 이용한 solid와 void 그리고 빛과 그림자의 연출이 가능하다. 또한 백색은 전통적으로 완벽함과 순수함 그리고 명료함을 상징하며, 가장 인상적인 색채로서 그의 작품에서 가장 개성적인 특성을 내포한다. 백색은 시각적인 형태의 힘을 강화시키고, 건축적인 개념을 명백히 하며, 추상적인 공간이나 스케일 그리고 자연과 컨텍스트와의 관련하에 공간을 정의하고 질서화 할 수 있도록 해준다.

5)이후에 아이젠만, 그레이브스, 파쓰메이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급진전하였으며, 헤이덕은 실무보다는 이론가로서 변모를 시도하였고, 마이어만 1923년 꼬르뷔제가 정의한 '대가의 솜씨로 빛 속에서 빛어낸 정확하고 장엄한 메스의 연출'이라는 건축을 창조하겠다는 최초의 생각을 그대로 믿고 나갔음.

2.2. Museum of Contemporary Art, Barcelona, Spain, 1987-95

수도원으로 사용되었던 대지(Casa de la Caritat)에 설립된 이 현대미술관은 스페인 북동부 지역의 카탈로니아 미술품을 중심으로 세계 현대작가들의 작품(약 1,630여 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현대미술품의 기획전시를 활발히 유치함으로써 지역문화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이 미술관의 배치계획은 울름의 슈타트하우스(Stadthaus, Ulm, 1986-93)와 헤이그 시청 및 도서관(City Hall and Library, Hague, 1986-95) 프로젝트에서 다루었던 동일한 기법으로 기존의 Urban Context를 고려하여 이 지역이 지닌 역사적인 도시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며 기존의 길과 보행자 산책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설계되었다.

(1) 진입부 구성

기존대지가 가지고 있던 길과 통로의 특성을 건물의 구성에 그대로 반영한 계획으로서, 특히 미술관 앞에 새로 조성된 천사의 광장(plaça dels Angels)과 미술관 뒤편의 조각공원사이의 보행자통로와 평행을 이루는 주출입구에서 잘 표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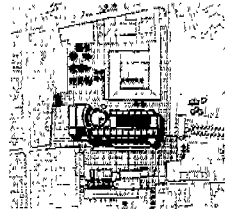
주진입부는 광장 레벨보다 1m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 입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설치되어있는 램프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한데, 이는 건물과 광장의 공간영역을 명확히 구분시켜 주고 있다. 건물로의 주진입부는 Atheneum(New Harmony, 1975-79)에서 사용하였던 기법처럼 방문자로 하여금 진입부의 인지도를 높여주기 위해 돌출되고 장식된 스크린 벽 하부에 위치시켰다.

(2) 평면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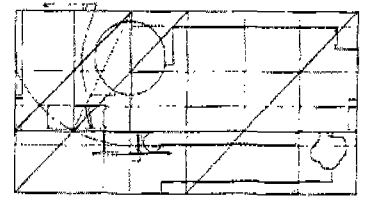
이 미술관의 평면 구성은 다이어그램 해석을 통해 공간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시켜 각 영역(zone)의 구획이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다. 평면은 정사각형이 반복 사용된 기하학적인 형태로 구성되었고, 2개의 정사각형이 접하여 만들어내는 직사각형은 도시 블록의 직사각형 형태를 반영하고 있다.

낮은 포티코(portico)를 지나 주출입구에 면해 있는 별도의 원형 메인 로비는 이러한 미술관의 기하학적인 정사각형과 도시의 직사각형의 형태를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광장과 미술관 뒤편의 조각공원을 연결시켜 주는 터널과 같은 통행로는 무지엄 샵을 포함하는 관련지원시설영역과 전시공간영역을 구획시켜주고, 메인 로비의 원형형태를 강조하면서 로비 내부로의 자연광유입을 가능하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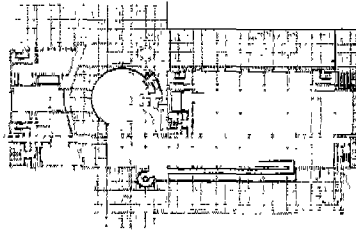
전시공간영역⁶⁾에서는 세부전시공간을 북측에, 수직동선(램프)을 남측의 유리 커튼 월에 접하게 계획하여 그 사이에 3개 층 높이의 대공간을 둬으로써 개방감뿐만 아니라 자연광 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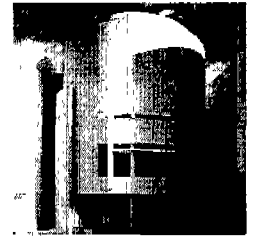
<그림 1> 배치도



<그림 2> 정사각형을 이용한 평면구성



<그림 3> 1층 평면도



<사진 1> 원형로비-건물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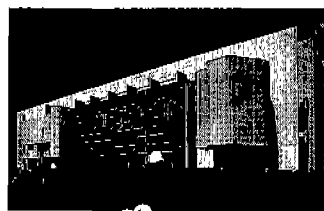
에 따른 밝은 전시환경을 조성하였다. 이 대공간은 남쪽으로 유리를 통해 광장의 전경을 바라볼 수 있는 투명한 공간으로 미술관의 가장 공적인 공간과 전시공간 사이에서 관람객을 유인하는 중재적 공간역할을 담당한다. 유리 커튼 월과 전시실을 서로 연결해 주는 램프는 풍피두센터의 외부 에스컬레이터, 층계참과 마찬가지로 순환을 위한 공간이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며, 각 부분을 연결하는 작은 길과 같은 기능을 한다.

지하 1층에 지원시설이 위치하고 있고, 지상의 전시영역은 3개 층, 관리영역은 6개 층으로 이루어졌으며, 관리영역의 일부는 미술관의 문화활동을 위한 최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메자닌(mezzanine)층으로 만들어졌으며, 예약에 의해서만 일반인들에게 개방되는 기록보관용(documentary reference room) 도서관은 6층에 위치하고 있다.

(3) 기본구조

이 미술관은 정사각형의 기하학적인 요소를 이용하여, 125m x 35m의 기본적인 직사각형인 평면형태에서 출발하였으며, 다른 프로젝트에서 사용되었던 정사각형, 직사각형, 원형, 자유곡선, 유리면 등 다양한 조형적인 언어나 기법을 반복 사용하여 서로 조화를 이루며 주변의 고건축물들과 새로운 미술관 건축물간의 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구조로부터 벽체의 분리, 각 레벨마다 공간개방과 평면형태의 자유스러운 변화, 자연광의 유입, 램프의 사용기법 등은 이



<사진 2> 초형미를 보여주는 건물의 주파사드



<사진 3> 유리면, 램프, 유리블록의 매개공간, 천창으로 구성된 대공간

6)본 논문에서는 마이어의 공간구성에 따라 전시영역을 크게 대공간, 매개공간(복도공간), 세부전시공간(일반 전시실)으로 구분하였음.

미술관이 가지는 조형미를 더해 준다. 특히 천사의 광장에 면한 미술관의 남측 입면은 형태의 다양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흰색의 알루미늄 패널 면(건물의 외벽)으로부터 돌출되어 주진입부를 강조해 주는 출입구 상부의 스크린 벽, 투명성에 의한 과거 역사와의 연결을 도모하기 위해 외벽 면으로부터 돌출된 직선형의 유리면, 직선적 요소와 상반되는 자유곡선으로 이루어진 특별전시공간, 그리고 외벽 면으로부터 후퇴되어 테라스로 사용되는 공간 등 다양한 조형요소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외벽 면으로부터 돌출된 부분에는 회벽마감의 이질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입면의 조형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4) 전시공간구성

순환램프를 거쳐 아래층으로 빛을 투과시켜 주는 반투명 유리블록의 매개공간(복도)을 통해 진입이 가능한 각 층의 세부 전시공간은 모두 대공간(Atrium)에 면해 있으며, 다양한 크기와 규모의 작품전시를 위해 넓고 개방적으로 설계되었다. 그리고 이 유리블록의 복도는 빛으로 충만하여 방문객들을 환영하는 분위기를 연출하며 공간을 한정시켜 준다.

3층의 전시공간은 중간의 구조기둥을 제거함으로써 전시에 필요한 무주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여과되어 전시실 전체를 동일하게 밝혀주는 은은한 자연광으로 인해 공간을 하나로 통합시켜 준다. 또한 3층 전시공간 바닥의 일부가 2층으로 개방되어 자연광을 전달하며 상하층간 공간의 연계성을 보여주고 있다. 임의로 설치된 전시벽들도 천장으로부터 격리시키거나 벽면에 개구부를 두어 공간의 연계성을 더해주고 있으며, 벽체와 천장 또는 벽과 벽의 접합을 가급적 단순하게 처리하여 산만한 요소를 배제함으로써 전시되는 예술품에 대한 배려를 고려하였다. 내부마감은 석고보드 위에 백색도장 되었으며, 바닥은 짙은 색의 우드 패널로 처리하여 전체적으로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5) 채광형식

이 미술관 설계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요소는 빛으로서, 미술관 내의 각 공간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광에 의해 4차원적인 시공간 개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대공간을 통한 자연광이 전층을 밝혀주고 있고, 주전시실에 설치된 루버형 천장을 통해 여과되어 유입되는 부드러운 자연광과 감동을 더해주는 공간적 배려는 관람객을 편안하게 해 주고, 미술품은 자연광과 더불어 더욱 고양된다. 3층의 루버형 천장, 일부 개방된 3층 바닥, 복도를 따라 계획되어진 천창과 반투명



<사진 4> 3층 전시장과 천창



<사진 5> 특별전시공간의 천창

유리블록, 자유곡선의 형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특별전시공간의 천창, 대공간을 밝혀주는 남측의 커튼 월, 꼬르뷔제의 브리세 솔레이(brise-soleil system)와 같이 리차드 마이어가 고안해 낸 스테인레스 스틸제의 차양을 이용한 자연광의 여과, 메인 로비의 자연광유입 등의 기법들은 빛과 공간에 대한 건축가의 신중한 배려와 의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전시공간 내 자연광의 적극적 유입/활용은 첨단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최근에 지어지는 미술관 건축의 두드러진 경향으로 렌조 피아노의 바이엘러 파운데이션 미술관(Beyerler Foundation Museum, 바젤, 독일, 1997)에서 그 극치를 이룬다.

(6) 동선체계

그의 웨스트버리 저택(Old Westbury, 1969-71)에서와 같이 필로티(pilotis) 아래로 진입부를 구성하였고, 전면 램프를 남측 유리창 면에 접하는 설계를 하였으며, 장식미술관(Museum of Decorative Arts, 프랑크푸르트, 1981-84)이나 High Museum of Art(아틀란타, 1980-83)에서와 같이 남측 커튼 월에 전진 배치시켜 구조기둥과 간벽으로 양분되는 램프를 통해 외부의 광장전경과 내부의 대공간을 교대로 여유롭게 산책하며 이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전시실에 면해 있는 복도 바닥을 유리블록을 사용함으로써 상부에서 유입되는 자연광을 하부공간으로 이어 준다. 관람 후 퇴관을 위한 동선은 램프에 인접한 원형계단이 최상층으로부터 지상층까지 유도하며, 평면구성상 방문객의 동선과 직원의 출입동선은 엄격하게 분리시켰다.

2.3. Museum of Television & Radio, Beverly Hills, CA., 1994-96

1975년 패일리(William S. Paley)에 의해 설립된 이 텔레비전/라디오 박물관은 비영리단체로서, 다른 미술관들과는 달리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프로그램들을 수집·보관·방영·방송하고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대여 또는 판매하며, 해마다 화제가 되었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전시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한다. 1976년부터 예술, 문화, 역사분야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수집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뉴스, 드라마, 공익프로그램, 다큐멘트, 예술, 아동프로그램, 스포츠, 코메디, 광고 등 다방면의 프로그램 100,000여 편 이상을 소장하고 있다. 1991년 9월 뉴욕 맨하탄의 박물관(필립 존슨설계)을 시작으로 1996년 3월에는 베벌리 힐즈에 리차드 마이어가 설계한 이 박물관이 개관됨으로써 박물관 소장품을 서부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 진입부 구성

이 박물관의 대지는 건축적으로는 두드러지지 않지만 중규모로 형성된 상업지역내의 베벌리 힐즈의 노스 베벌리 도로(N. Beverly Dr.)와 리틀 산타 모니카 대로(Little Santa Mon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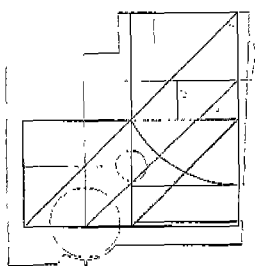
Blvd.)의 교차로 남서쪽 코너에 위치하며 랜드마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다소 경사진 베벌리 도로에서 진입이 이루어지는 출입구 파사드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안쪽으로 후퇴시킴으로써 보행자들에게 로툰다 로비로 이르는 2층 높이의 공공정원인 여유공간을 제공하면서 출입구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며, 공공정원과 인도의 바닥마감재료를 달리하여 공간의 영역성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주출입구 좌측의 외벽과 계단식 램프를 지지하는 구조벽, 램프의 바닥, 그리고 외부의 공공정원의 바닥마감을 같은 재료(자연석)를 사용함으로써 내부와 외부공간을 유기적인 관계로 연결시켜 주었고, 도로에 면해 있는 두 방향의 파사드를 투명하게 처리하여 개방감 뿐만 아니라 내·외부공간간의 시각적 연계성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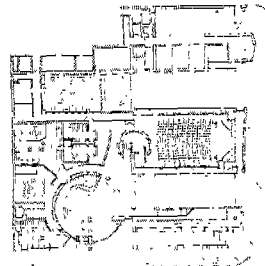
(2) 평면 구성

이 미술관은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에서와 마찬가지로 세 개의 정사각형이 반복 사용된 기하학적인 형태에 원형을 가미하는 다이어그램 해석방법에 의해 평면을 구성하였다. 박물관의 성격·기능상 다른 박물관과는 달리 전시공간의 비중이 적으며, 대신 원하는 프로그램을 듣고, 볼 수 있는 공간과 시청각 자료실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면구성을 보여주고 있고, 공간의 기능에 따라 총별 공간구획을 하였다.

천창이 있는 별도의 원형 로비는 방사상 중심의 핵으로 1층의 갤러리공간, 150석의 극장, 라디오 청취실, 라디오 스튜디오, 다목적 교육실, 뮤지엄 샵, 안내 데스크 등으로 직접 연결된다. 방문객은 로비로부터 전시구역을 관통하는 계단식 램프를 통해 2층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2층의 도서관과 비디오 보관실로 돌아가기 전에 1층 공간을 내려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층에는 도서관과 비디오 보관실, 시청각자료실, 로툰다 원형벽면을 이용한 전시공간 등이 위치하며, 3층에는 지붕테라스로 개방된 중역회의실과 사무실 등이 위치하고, 원형 로비를 구성하는 중요한 조형적 요소 중의 하나인 곡선계단을 통해 접근이 이루어진다. 그 외에도 르 꼬르뷔제가 주로 사용하였던 건축언어 중의 하나인 옥상정원을 두어 연회나 야외 이벤트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그림 4> 정사각형을 이용한 평면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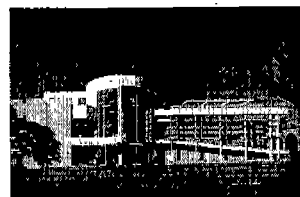


<그림 5> 1층 평면도

(3) 기본구조

자연광이 가득한 캘리포니아 남부지방의 기후에 맞게 거리 쪽으로 개방된 형태를 취하고 있는 이 박물관은 기존 은행건물의 구조를 대부분 재사용하였으며, 사무공간으로 개조된 인근 건물과 연결되어 있다.

한쪽으로 치우쳐 수평과 수직의 균형을 잡아주는 원형 로비를 중심으로 건물이 구성되었고, 금속 패넬에 의한 수평적 요소와 자연석의 수직적 요소가 건물의 조형미를 더해 주고 있다. 또한 밝은 색조의 자연석과 흰색 금속 패넬, 그리고 투명한 유리로 처리된 건물 외벽은 박물관 내부와 거리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를 창출하고 있다. 램프가 만들어 내는 사선형태의 과감한 노출은 경사진 도로와 일맥을 이루는데 이러한 노출은 New Harmony의 Atheneum(1979) 프로젝트에서 선행된 바 있다. 계단식 램프를 지지하는 구조벽은 전시공간으로의 직사광선을 차단하는 역할도 한다. 파사드에 사용된 넓은 유리, 기하학 형태의 천창이 있는 원형 로비, 자유곡선의 2층 발코니, 갤러리 공간, 산책 램프, 곡선 계단 등의 요소들은 박물관의 조형성을 강조하며 개방적이고 활기 넘치는 환경을 연출한다.



<사진 6> 주파사드-램프와 원형 로비



<사진 7> 원형의 메인 로비 전경

(4) 전시공간구성

메인 로비의 우측에 위치하고 텔레비전과 라디오, 또는 관련된 예술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2층 높이의 주 전시공간은 하나의 공간으로 개방되어 있으며, 양 벽면의 단부에 설치된 천창으로부터 유입되는 자연광은 밝은 색의 벽면과 더불어 온화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이외에 메인 로비 1, 2층의 원형복도를 따라 벽면전시공간을 두었고, 벽면상에 개구부를 뚫으로써 답답함의 해소 및 공간의 시각적 연계성을 도모하였으며, 모든 전시공간의 바닥재료는 다른 공간과 이질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영역을 구분시켰다.

(5) 채광형식

건물 내부로 가급적 많은 빛을 유입시킴으로써 방문객을 환영하는 밝은 이미지를 연출하였고, 이러한 이미지는 실내의 밝은 색의 자연석과 흰색의 벽마감으로 더욱 두드러진다. 그리고 직사각형, 원형, 정사각형 등 다양한 형태의 천창은 건물의 조형미를 더해 주고, 건물 정면의 유리면 파사드에 고안된 차양



<사진 8> 전시공간-램프와 유리면, 구조벽, 천창

시스템은 건물의 수평적 요소를 강조하며 내부로 유입되는 자연광을 여과시켜 준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석 마감의 구조벽면 위로 펼쳐지는 그림자의 이동은 방문객들에게 4차원의 시공간개념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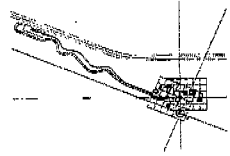
(6) 동선체계

램프는 마이어가 즐겨 사용하는 수직동선 해결방안으로서,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에서와 같이 유리면에 전진 배치되어 구조벽으로 양분되는 램프를 통해 외부의 도로전경과 내부전시공간을 교대로 산책하며 이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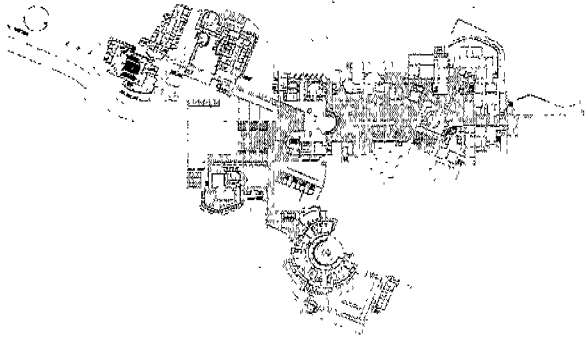
방문객과 직원들간의 동선은 엄격히 분리되어 있으나 건물 내에서 방문객은 인위적 동선이나 강제동선으로 유도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졌다.



<그림 6> LA 도심축과의 연결



<그림 7> 고속도로 축과 평행



<그림 8> 1층 평면도

2.4. Getty Center, Los Angeles, CA., 1984-97

미술문화 단지인 게티 센터는 1997년 12월 26일 로스앤젤레스 도심지의 서측 근교 브렌우드(Brenwood) 언덕 위에 프로젝트 개시 이후 14년만에 개관되었다. 이 센터는 새로운 미술관을 비롯하여 정보센터, 미술품 보존과학연구, 미술사·인문과학연구, 미술교육 프로그램 연구, 연구지원 등 6가지 성격으로 구성된 복합예술단지로서, 1974년과 76년 석유재벌인 게티(J. Paul Getty, 1893-1976)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거대한 자본금을 바탕으로 1984년부터 새로운 미술관 건립과 관련된 기구를 확대해 왔다.

최근에 개관된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1991-97)이 자유분방한 조형미를 표방한 것에 비해 게티 센터는 우아하고 고전적 모더니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꼬르뷔제의 영향으로 태양광선의 반사에 의해 뚜렷한 형태가 강조되는 지중해의 전통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미술관에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중세에서부터 19세기까지의 회화와 장식예술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그리스 로마시대의 골동품들은 기존 말리부 미술관에 남겨졌다.

(1) 진입부 구성

산타 모니카, 로스앤젤레스 해변, 태평양이 내려다보이는 뛰어난 조망을 갖춘 이 센터는 샌디에고 고속도로 변에 주차장을 계획하였고, 그곳에서 특수 궤도차(tram)를 이용하여 구름을 지나 개방되고 환영하는 분위기의 진입광장에 도착하는 특수운반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투기 건설업자의 접근을 막고,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제공 및 외부 소음으로부터의 차단을 통해 조용하고 여유있는 미술관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6개의 다른 용도의 구성요소를 하나의 일관성 있는 통합체로 엮는 동시에 각각이 지닌 개별적 특성을 살리기 위한 시도로써 축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대지 약 3만평의 언덕 위에 진입플라자와 Robert Irwin이 설계한 중앙정원(Central Garden)을 잇는 2개의 중앙축이 22.5°로 교차하고 있고, 이 축들은 로스앤젤레스 도로망을 빠져 나와 북쪽으로 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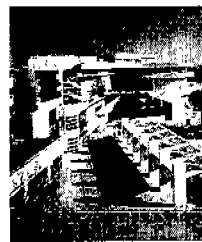
어지는 샌디에고 고속도로의 골목과 로스앤젤레스의 도심지 그리드 패턴과 일치한다. 또한 이 축을 중심으로 그 좌우에 6개의 기능을 가진 건물들이 지세에 따라 분산 배치되어 마치 캠퍼스의 배치계획과도 같다. 또한 전체 배치 속에 미술관은 자연광이 충분한 원형의 진입동과 별도의 중정을 중심으로 6개의 분동형식으로 구성되었고, 각 동은 테라스와 개방된 통로로 연결고리를 이룸으로써 주변의 로지아, 필로티, 파고라와 더불어 친해의 기후와 자연경관을 즐기며 여유롭게 예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방문객을 환영하는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 원형의 진입동은 넓고 밝으며, 이와 어우러지는 계단과 유리면, 막힘과 트임의 건축언어를 통해 상징적인 공간으로 부각시켰다. 진입동 내에는 게티 센터의 종합적 안내를 위한 극장과 뮤지엄 샵, 물건 보관소 등을 위치시킴으로써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미술관 중정과 연계시켜 이벤트 장소로도 겸용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였다.

(2) 평면 구성

전체적인 배치는 축의 개념과 정방형의 기하학을 통한 다이아그램 해석과 같은 일률적인 규범에 의해 구성되었으나 다양한 공간감을 제공하고 있다.

미술사·인문과학 연구센터는 부지 남서쪽 끝 원형건물에 수용되며, 북쪽에는 보존협회, 교육센터, 장학재단 등의 건물이

한 곳에 모여 있고, 게티기금 사무소와 미술사 정보재단, 450석의 강당이 나머지 부분을 구성한다. 관람객 편의시설은 진입동에 별도



<사진 9> 진입광장 전경



<사진 10> 원형 대공간



<사진 11> 미술관 건물과 중정 전경

로, 카페 및 레스토랑은 연구 센터 바로 북쪽 전망 좋은 곳에 독립적으로 배치시켰다.

미술관 건물군의 중심을 이루는 중정은 단순히 상징적 공간의 역할뿐 아니라 야외공연

및 다수 관객의 집합 분산이 가능하도록 조절해 주는 복합적인 기능을 갖으며, 대지 내에 물과 나무라는 자연적 요소를 반복 사용함으로써 멀리 내려다보이는 태평양과 구릉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편안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독립된 원형의 진입동을 통해 중정에 들어서면 시대별(7)로 2층의 동서남북 4개 전시동과 특별전시실 위한 기획전시동으로 나뉘어지며, 중정을 대공간으로 각 동마다 소규모의 또 다른 대공간을 갖도록 계획하여 안내센터를 겸한 지원시설을 분산 배치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3) 기본구조

여러 가지 기능과 분동형식으로 건물의 형태와 규모에 따라 각각 매우 다른 개별성을 가지지만, 그 동안 마이어가 추구하여 왔던 통합된 조형언어들로 조화를 이루는 게티 센터는 구릉이 가지는 지형의 고저차를 이용하여 계획되었다. 기본적인 골격은 철근콘크리트 기단 위에 철골조를 사용하였으며, 유리의 사용에 의한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미스 반 데 로에의 환즈 위스 주택(Farnsworth House)에 사용되었던 클래딩(cladding) 철골조가 적용되었다.

미술관은 변량 알미늄판(enameled aluminium panel)으로 처리된 다른 건축과 구분하기 위해 담황색의 거친 티보리산 트래버틴(travertine)을 사용함으로써 고전미를 구사하였으며, 모든 건물의 옹벽과 기단 재료로서 거칠게 마감된 트래버틴을 사용해 영속성과 근원성을 부여하였다. 그간 마이어는 백색건축으로 일관된 작업을 계속하여 왔으나 이 프로젝트에서 변신한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4) 전시공간구성

이 센터는 고전적인 모더니즘을 선호하는 건축가와 전통적인 유럽미술관의 고전품을 원하는 John Walsh 관장 사이에 많은 갈등을 해소하면서 완성된 건축물이다. 따라서 건물의 외관은 고전적 모더니즘에 기반을 둔 현대건축의 이미지이고, 대조적으로 내부 전시공간은 건축주와 미술관장의 취향에 따라 복고풍으로 여러 개의 방을 겹친 구성을 보이고 있다. 시대별로 배치된 전시공간은 진실역할을 대신하는 대공간과 중정 이외에도 각 동마다 자연광이 충만한 독립적인 소규모의 대공간을 두어 밝은 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대소전시공간을 혼합 배치하여 다양한 공간감을 제공하고, 각 실의 벽은 목재 프레임을 돌린 뒤 회반죽이나 실크와 울 등으로 마감되어 유럽의 고전풍을 연상시키며, 주로 회화 전시실로 사용되는 2층의 천장은 우물천창 또는 피라밋처럼 솟아오른 중앙에 천창을 두어 실내로의 빛을 유입시키고 있다. 그리고 전시물의 성격에 따라 마감재료를 선택하였으며, 조각전시실에는 석재바닥과 회벽마감을 사용하여 목재바닥과 실크, 울 등으로 마감된 그림이나 가구를 위한 전시실과는 대조를 이룬다. 장식미술을 보여주기 위해 몇 개의 전시실은 전시설계가 Thierry Despont와 협력하여 디자인되었으며, 가구전시실 위해 그 시대의 분위기를 연출하는 방을 재현하기도 하였다.

(5) 채광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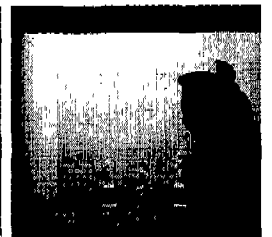
1층 전시실의 벽이나 2층의 천장에 각기 다른 형태의 창을 두어 스크린 된 자연광을 적극적으로 유입시켜 밝고 쾌적한 전시분위기를 연출하였는데, 이와 같은 자연광의 적극적인 도입은 최근에 지어지는 미술관건축물들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로 첨단기술을 이용한 채광형식이나 형태의 변화로 관람객에게 다양한 전시환경을 제공하며 극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자연광에 의한 전시품 손상을 막기 위해 상대적으로 빛의 유입이 적은 1층에는 최대 50lux 이하를 유지해야하는 장식예술품, 종이 위에 그려진 작품들과 원고들이, 2층에는 200-300lux 이하를 유지해야하는 유화 등의 그림을 전시하였다.

천창의 디자인은 존 손경이 설계한 런던의 Dulwich Picture Gallery에 적용되었던 안을 모체로 수정·적용하였고, 그의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에서도 적용된 바 있는 기획전시실의 작동 가능한 루버는 색유

리와 더불어 자연광의 유입량을 적절하게 조절해 준다. 인공조명은 천창 하부의 경계선을 따라 숨겨져 있어 단순한 전시환경을 만들어 준다.



<사진 12> 유화전시실과 피라밋 천창



<사진 13> 조각전시장과 자연광

(6) 동선체계

각 전시실은 광장을 중심으로 분동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중심광장은 전시실의 전정(前庭)으로 멕시코 국립 인류학 박물관(Museo Nacional de Antropologia, 1963-64)에서처럼 건물내·외부로의 자유로운 진·출입이 가능하여 관람객의 선별관람을 용이하게 도와준다. 이는 관람동선 선택의 혼란이라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박물관의 동선체획으로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관람객의 다양해지는 문화적 욕구를 해소시켜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동 연결부의 로지아공간과 더불어 연속된 관람에 따른 높은 피로도를 감소시켜 준다.

7) 동선흐름의 순서별로 보면 North Pavilion(Art before 1600), East Pavilion(Art 1600-1800), South Pavilion(Art 1600-1800), West Pavilion(Art after 1800)로 배치되어 있음.

각 동마다 중심 홀을 통하여 수직연결도 가능하며, 전시실은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방문객과 직원들간의 동선은 zoning 계획을 통해 엄격히 분리시켰다.

3. 공간구성 특성 분석

3.1. 평면구성특성

(1) 주변환경과의 조화

대지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나 urban context, 또는 자연조건의 이해로부터 출발하는 마이어의 미술관 계획안은 정연한 축과 주변조건을 따르는 또 다른 축을 혼합한 평면구성 형태로서 주변환경과 잘 조화를 이룬다. 정방형 그리드 시스템(grid system)에 의한 기하학적 평면구성이 대부분이며, 평면 일부에 반드시 원형이나 자유곡선을 사용하여 형태의 대비를 통한 기능적·조형적인 면을 강조하였다.

(2) 간결한 진입부 구성

형태와 마감재료의 변화를 통해 외부로부터 진입부에 대한 시각적 인지도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다목적 홀로도 사용되는 원형의 메인 로비를 중심으로 간결한 진입부를 구성하였다. 또한 상층부가 개방된 별도의 진입동인 메인 로비를 건물의 중앙에 위치시켜 자연광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도모함으로써 방문객들을 환영하는 밝은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메인 로비와 야외공간을 연계시켜 특별 이벤트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가용적인 공간을 계획하였다.

(3) 대공간의 활용

대공간은 전시영역의 중심 홀로서 그 뮤지엄을 대표하는 상징적 공간이자 전시실의 전설역할로 모든 전시실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되어져야 하며, 상층부를 개방시키고 자연광을 도입하여 메인 로비와 더불어 쾌적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전시공간은 수직분리형이라도 대공간과의 연계성을 도모하여야 하며, 분동형식의 경우 중정 이외에도 각 동마다 독립적인 소규모의 대공간을 필요로 한다.

(4) 내·외부 공간의 연계

주출입구가 위치한 건물 주파사드의 전면을 유리로 처리하여 보행자나 방문객들에게 개방적인 이미지를 연출하였고, 램프와 구조벽을 외부도로와 대공간에 면해 설치함으로써 한가로이 거닐며 내·외부 공간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분동형식의 경우 정원의 형성으로 건축 내·외부의 유기적 연결을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기 전시관람에 따른 피로감을 감소시켜주며, 야외전시장 및 야외공연장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필로티와 로지아공간을 마련하여 대지 주변의 자연환경과 시각적 연계를 도모하였다.

(5) 전시공간(served space)과 관련지원시설(servant space) 구분

전시영역과 관련지원시설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나 복도, 층별, 또는 영역(zoning)별 구획에 의해 엄격히 구분된 것이 특징으로서 루이 칸의 엄격한 공간분리 개념⁸⁾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3.2. 전시공간구성 특성

(1) 은화한 분위기

전시장의 은화한 분위기는 건축기술과 디자인의 현란한 디테일에 의해 예술품을 감상하는데 방해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자연광 유입에 의한 밝은 이미지 연출, 가급적 단순하게 처리된 공간구성요소들과 마감재료의 선택 등을 통해 전시에술품이 가지는 미적 가치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배려했고, 관람객의 경험의 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2) 매개공간의 활용

전시공간은 대공간, 매개공간 세부전시공간의 순서로 구성되었다. 대공간은 전시실의 전설 역할과 동시에 수직동선을 포함하는 상징적인 공간의 역할을 수행하고, 매개공간은 복도공간으로서 대공간과 세부전시공간을 이어주는 완충공간이자 소규모의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밝은 대공간과 어두운 세부전시공간간의 밝기 차이에서 오는 눈의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건축적 해결은 주목할 만하다.

(3) 기본구조

건물의 외피를 구조벽으로부터 이탈시킴으로써 자유로운 입면의 구성이 가능하게 되었고, 가급적 무주공간으로 구획된 전시공간의 기본구조는 건축구조를 에워싼 전시벽으로 인하여 기둥의 노출을 감소시킨다. 연속된 전시공간이라 할 지라도 방의 크기나 체적, 또는 개구부의 형태 등에 변화를 주어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공간감을 제공하며, 전시벽의 일부를 개방시킴으로써 공간간의 연계성을 도모한다. 또한 종래 무창(無窓) 처리되던 전시공간들이 외부공간과의 연계를 시도하고 있으며, 전시공간 일부를 외부공간과 연계하여 전시배경으로 삼아 4계절 변화를 배경으로 하는 다양한 전시환경을 조성한다.

(4) 지원시설의 분리배치

분동형이나 수직분리형의 경우 시대별·장르별로 교육을 겸한 안내센터나 기타 지원시설을 각 동 또는 각 층마다 분산 배치함으로써 전문성을 가지고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게 한다.

3.3. 동선체계와 체광형식

(1) 동선체계

공간의 수직적 연결을 위해 그의 주택설계에서 자주 사용되던 램프를 도입하여 건물 내·외부를 교대로 한가로이 즐기

8) 루이 칸이 예일대학 영국예술센터(The Yale Center for British Art)에서 보여 준 전시공간(served space)과 관련지원시설(servant space)의 엄격한 분리개념을 말한다.

면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게티 센터의 경우 중정을 이용한 건물 내·외부로의 진·출입을 가능케 하여 관람객의 선별관람을 용이하게 하였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관람객과 직원들의 동선은 엄격히 구분시켰다.

(2) 채광형식

기존의 전통적인 채광방법과는 달리 미술관 전체에 자연광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밝은 이미지를 연출하였고, 자연광을 유입하기 위한 건축의 구조적 해결 및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간의 변화를 통해 4차원적 시공간을 경험하게 한다. 천창과 벽면 개구부의 형상이나 위치를 변화시킴으로써 각 전시공간의 이미지를 달리하며, 내부공간의 다양한 효과를 보여준다. 상층부뿐만 아니라 저층부까지도 자연광이 전달되도록 하며, 이러한 개구부가 외부조형으로 나타나는 밀접한 상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전시공간은 인공조명과 더불어 실내를 일정한 조도로 유지시켜 줌으로써 평온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실내공간의 조형미를 더해 준다.

4. 결론

본 연구는 '백색건축의 미'를 통해 '모더니즘의 시학, 테크놀러지의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일관되게 추구해 온 고전적 모더니스트 리처드 마이어가 설계한 세 미술관 건축작품의 구성요소 및 특성을 진입부 구성, 평면구성, 기본구조 및 조형성, 전시공간 구성, 채광형식, 동선체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세 미술관의 공간구성의 특성을 항목별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마이어가 주장하는 건축은 역사의 기나긴 연속체로서 전통과 접목시키는 것이었고, 빛과 공간, 빛에 의한 다양한 공간연출, 빛과 휴면 스케일, 건축문화와 인간의 질서 및 정의에 대한 문제점들을 끊임없이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공간개념의 4차원 세계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분석된 마이어의 미술관 공간구성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빛, 공간, 형태'의 요소를 주제로 설계된 마이어의 미술관 건축은 대지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원, 정사각형, 직사각형, 자유곡선 등 그의 기하학적 모듈 및 조형언어를 통해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2) 건물 외피를 구조벽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간결하면서도 인지도가 높은 진입부 구성 및 유리를 사용한 개방적인 입면구성을 가능케 하였으며, 이를 통해 건물 내·외부간의 연계성을 도모하였다.

3) 광량(光量)을 공간별·용도별 구분에 따라 차등화 시켰고, 자연광을 적극적으로 유입시킴으로써 밝고 쾌적한 실내공간을 만들어 관람객에게 다양한 공간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형태적 대응을 제시하고 있다.

4) 전시공간은 대공간과 세부전시공간 사이에 매개공간을 두어 공간을 기능에 따라 논리적으로 해결하였으며, 다기능의 메인 로비와 야외공간의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공간의 가용성을 추구하였다.

5) 상층부가 개방된 밝은 이미지의 대공간은 상징 공간이자 전시실의 전설역할을 수행하며 전시공간으로의 접근이 용이하게 계획되었고, 수직동선으로 램프를 사용하여 한가로이 거닐며 내·외부공간을 교대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6) 분동형식의 경우 각 동마다 독립적인 소규모의 대공간을 두어 교육을 겸한 안내센터나 기타 지원시설을 배치시킴으로써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별도의 진입동을 두었다.

7) 세부전시공간에서는 자신의 건축을 내세우기보다는 다소 절제되고 명확한 공간구성, 전시품과 조화를 이루는 마감재료의 선택 등 예술품에 대한 배려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

8) 대소 전시공간의 적절한 구획을 통한 다양한 공간구성은 전통적 구성기법을 현대적으로 변화시킨 새로운 해석으로 볼 수 있다.

9) 직원과 관람객을 위한 동선은 엄격히 구분시켰으며, 게티 센터의 경우 건물 내·외부로의 진·출입이 가능하여 관람객의 선별관람을 용이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속된 관람에서 오는 피로를 감소시켜 준다.

이와 같이 리처드 마이어의 미술관은 그의 일관된 건축언어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공간적 경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양해져 가는 현대인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4차원 시공간개념의 실현을 보여주는 좋은 예로서 새로운 현대미술관건축계획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

참고문헌

1. 서상우, 세계의 박물관·미술관, 기문당, 1995
2. Philip Jodidio, Richard Meier, Taschen, Köln, 1995
3. Richard Meier, Richard Meier: Architect, Rizzoli, New York, 1984
4. Michael Brawne, The Getty Center: Richard Meier & Partners, Phaidon, London, 1998
5. Werner Blaser, Richard Meier: Building for Art, Birkhäuser Verlag Basel, 1996
6. Werner Blaser, Richard Meier: Details, Birkhäuser Verlag Basel · Boston · London, 1996
7. Richard Meier, 건축과 환경, 1997년 5월호, 통권 153호, 1997
8. John Kurtich · Garret Eakin, Interior Architecture, Van Nostrand Reinhold, New York, 1993
9. Richard Meier, Richard Meier: Architect, Rizzoli, New York, 1991
10. 서상우, Richard Meier의 建築理念, 국민대학교 조형논총, 제 10집, 1990
11. (사)한국박물관건축학회, 미국서부 및 멕시코의 새로운 뮤지엄, 1999

<접수 : 2001. 1. 31>